

순천시, 공공건축물 벽면녹화시범

조곡동·덕연동 행정복지센터 벽면녹화시범 조성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시민참여 활성화에 주력

순천시가 최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2곳의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했다.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은 패시브 하우스, 건물녹화사업 등 에너지 저감, 도심 내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순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에 대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총 236곳에 19억원을 지원해 왔다. 순천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부분이 패시브 하우스 등 에너지

저감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건물녹화에 대한 시민들의 호감도는 높지만 실제 녹화조성은 망설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공공건축물인 조곡동과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벽면에 녹화사업을 추진했다. 일반적인 벽면녹화는 주로 실내나 외부 장식요소로 소규모 식재하거나 옹벽구조물에 넝쿨식물을 식재하는 방식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는 녹화의 시각 효과보다 도심 생태환경과 시설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해 조성했다. 또한 건물녹화 활성화를 위해 건축조례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등 자치법규를 개정해 올해부터는 민간 건축물 녹화사업에 보조금을 최대 80%, 4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따라서 연내 전남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공건축물 2곳의 옥상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순천형 벽면·옥화 녹화 모델화, 녹색건축물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전국 지자체 중 독보적으로 민간에 대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해 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건축물 녹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개선되고, 민간으로 점차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

오는 10일까지 모집...선정된 1개 작가팀 4억원 사업비 지원

고흥군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참여 작가팀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는 미술인 대표자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하며 대표자, 작가, 행정지원인력을 포함 37명 이상으로 팀을 구성하고, 사업신청서와 제안서, 작가자격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

문 접수하면 된다. 작가팀 선정은 사업의 이해도, 실행 가능성, 기획력 및 예술성, 예산적정성, 지역예술인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팀별 PT발표)가 진행되며, 선정된 1개의 작가팀에 4억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으로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특색있는 예술공간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원어민 화상학습 제44기 모집

여수시, 영어·중국어 2개 과정...내달 7일부터 400명 모집

여수시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시민 양성을 위해 제44기 사이버 원어민 화상학습 수강생 400명을 모집한다. 영어, 중국어 2개 과정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여수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학습은 오는 28일부터 4개월간, 원어민강사 1명과 학생 5명이 그룹을 이뤄 월~금요일 오후 3시부터 밤10시 사이에 진행된다. 학습참여 신청은 7일부터 8일 여

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홈페이지(<http://cyberedu.yeosu.go.kr>)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레벨테스트를 통해 급수별 수업을 진행한다. 수강료는 시가 전액 지원하며, 교재 구입은 수강생 선택이다. 수강생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온라인(영어, 중국어, 일어) 강좌와 최신도서를 포함한 4,600여종의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며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운 기자

광양시 컨테이너항~섬진포구 해양관광도시 밑그림 그린다

섬진강 뱃길 유람선 운항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광양시가 광양관광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해양관광 청사진을 차근차근 그려나간다. 시는 지난 1일 정현복 광양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관광의 밑그림이 될 '섬진강 뱃길 유람선 운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항에서는 광양 컨테이너항에서부터 섬진포구까지 총 길이 24km 구간의 개발 여건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본구상 및 계획, 투자유치

전략,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 조사 등을 수립한다. 특히,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와 구룡산 권역 관광지 등 도심권과 연계해 세계적 내내 즐길 수 있는 해양체험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의 참여와 체험관광 수요를 창출해 나간다. 시는 시설 노후, 경관 관람 중심, 연계 프로그램 부족 등 국내 관광유람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한 광양만의 차별화된 해양관광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특히, 유람선 구간 수심 확보와 광양항 인근 유람선 운항 가능 여부, 선박 선정 및 운영, 도선행위에 대한 제약 문제, 유람선 운항의 경제성과 지역관광자원 간 연계방안 등 주요 이슈를 도출해 실현 가능성 분석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경쟁력이 높은 광양만과 섬진강을 연계해 새로운 해양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이번 운항의 목표"라며, "시일이 더 걸리더라도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과 시행 가능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안

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구룡산 관광단지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추진되며 우리시 관광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며, "어린이테마파크와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 등 핵심 관광사업과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내년 완공 예정인 질드레, 배알도 섬정원, 섬진강끝마을을 액티비티존 등과 시너지를 통해 증가하는 해양관광수요에 크게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운 기자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키는 보성 600

보성군, 주민참여형 코로나19 안전지킴이활동 전개



을 펼치며 군민 안전지킴이에 나선다. 읍·면민회, 이장, 자율방범대, 보성JC, 새마을회 등이 참여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는 방역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면서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키는 보성 600은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키는 보성 600'은 전라남도도와 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맞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성600 사업은 보성군에 있는 600개 자연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주민참여형 마을 가꾸기 사업이며 현대판 '두레'라고도 불린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시, 각계 원로 초청 시정현안 의견 수렴

본청사 별관 증축, 3여 통합 완성 위해 과감하게 추진



여수시가 최근 여수시정 상황실에서 지역 각계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선7기 시정추진 현안에 대해 각 분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해 종교계 4대 종단 대표와 상공회의소 회장,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대표 등 13명이 참석했다. 시는 먼저 '남해안남중권 10개 시

와 공동추진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전남동부권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 등' 4대 중점 시정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또한 여수시의 흠어진 8개 청사를 한데 모으는 본청사 별관 증축과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각계 원로의 의견을 수렴했다. 원로들은 4대 중점 시정현안을 여

수의 섬이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해서는 "3여 통합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합 정신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차단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여수 시민 67%가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여기 저기 흠어진 청사로 시민불편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 빨리 과감히 추진해 속도감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산구